

IBKS Spot Comment

에너지/소재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에너지/소재]

남아돌던 탄소가 부족해진다

팔던 탄소에서 사야 하는 탄소를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AU25(Korea Allowance Unit 25) 가격은 작년 8월 톤당 8,000원대에서 올해 8월 20일 30,100원까지 오르며 1년 만에 약 3.5배 상승, 3만원을 돌파했다. 표면적으로는 8월 말 배출권 제출을 앞둔 부족업체의 매수 수요가 가격 상승을 촉발했지만, 이번 가격 급등의 본질은 단기 수급 요인보다 3차 계획기간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끝나고 4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 공급체계 자체가 타이트해졌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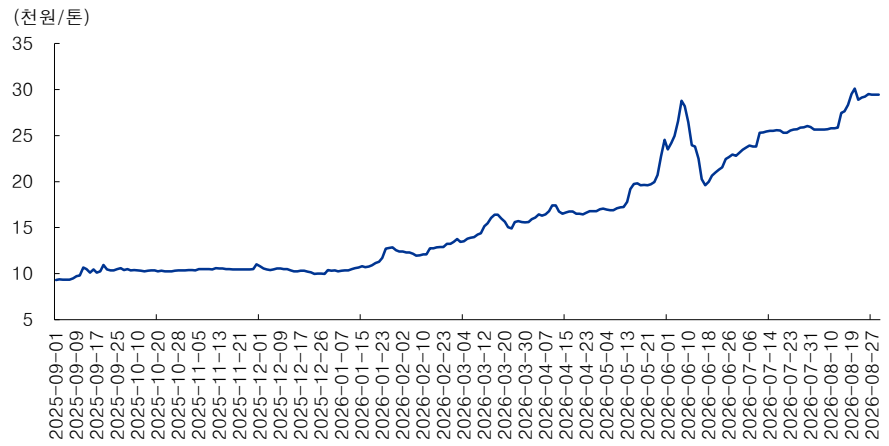
3차 계획기간 종료 시점에도 시장에는 상당한 잉여 배출권이 남아 있었지만, 잉여업체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이월을 선택하면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은 줄었다. 반면 부족업체는 정산을 위해 반드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유통물량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여기에 4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 비중이 낮아지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전사는 과거의 잉여 공급자에서 구조적인 순매수자로 변하고 있다. 또한 3차 계획기간 발전부문의 과잉할당 물량 회수와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처럼 경기 둔화로 남는 배출권이 계속 시장에 쌓이는 구조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3만원을 넘어선 배출권 가격은 단순한 계절적 급등이라기보다, 탄소의 가격결정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리레이팅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으로는 8월 말 정산 수요가 소멸된 이후 KAU25 가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진짜 확인해야 할 지표는 9월 이후 본격 거래될 KAU26이다. 정산 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KAU26이 2만원대 중후반 이상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최근 상승은 일시적 수급이 아니라 4차 계획기간의 구조적 공급 축소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

결국 국내 배출권 시장은 남는 배출권을 처분하는 시장에서, 앞으로 부족해질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발전/철강/정유/화학 등 배출권 순매수 업종에는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N₂O(아산화질소) 감축이나 바이오매스 전환을 통해 구조적으로 잉여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는 과거 시장이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익원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참고로 국내 TKG휴켄스는 작년 말 공시 기준 약 452만톤의 탄소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 KRX,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